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55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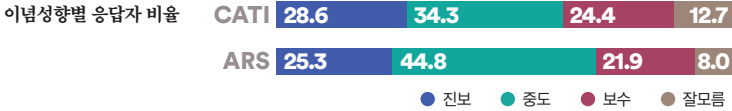
제70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17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17	100.0%	1,017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07	49.9	503	49.5	0.99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10	50.1	514	50.5	1.01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만18~29세	166	16.3	163	16.0	0.98				
응답률	12.5% [총 통화시도 8,156명]			30대	151	14.8	152	14.9	1.01				
조사기간	2024년 1월 19일 ~ 1월 20일(2일간)			40대	188	18.5	182	17.9	0.97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6	19.3	200	19.7	1.02				
				60대	172	16.9	174	17.1	1.01				
				70세 이상	144	14.2	146	14.4	1.01				
			지역	서울	192	18.9	191	18.8	0.99				
				인천·경기	325	32.0	326	32.1	1.00				
				대전·세종·충청	102	10.0	106	10.4	1.04				
				광주·전라	99	9.7	98	9.6	0.99				
				대구·경북	96	9.4	99	9.7	1.03				
				부산·울산·경남	159	15.6	153	15.0	0.96				
				강원·제주	44	4.3	44	4.3	1.00				

ARS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6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6	100.0%	1,006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32	52.9	499	49.6	0.94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74	47.1	507	50.4	1.07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만18~29세	116	11.5	161	16.0	1.39					
응답률	3.2% [총 통화시도 31,659명]			30대	143	14.2	149	14.8	1.04					
조사기간	2024년 1월 19일 ~ 1월 20일(2일간)			40대	194	19.3	180	17.9	0.93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3	197	19.6	0.92					
				60대	189	18.8	173	17.2	0.92					
				70세 이상	150	14.9	146	14.5	0.97					
			지역	서울	193	19.2	188	18.7	0.97					
				인천·경기	319	31.7	322	32.0	1.01					
				대전·세종·충청	109	10.8	106	10.5	0.97					
				광주·전라	100	9.9	98	9.7	0.98					
				대구·경북	96	9.5	98	9.7	1.02					
				부산·울산·경남	147	14.6	151	15.0	1.03					
				강원·제주	42	4.2	43	4.3	1.02					

52.9%
남성

47.1%
여성

19.2%

31.7%

10.8%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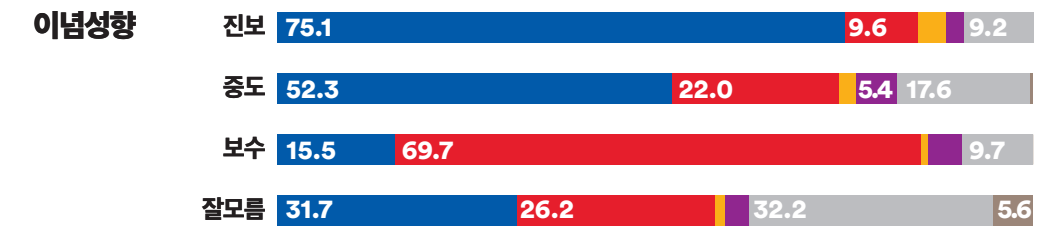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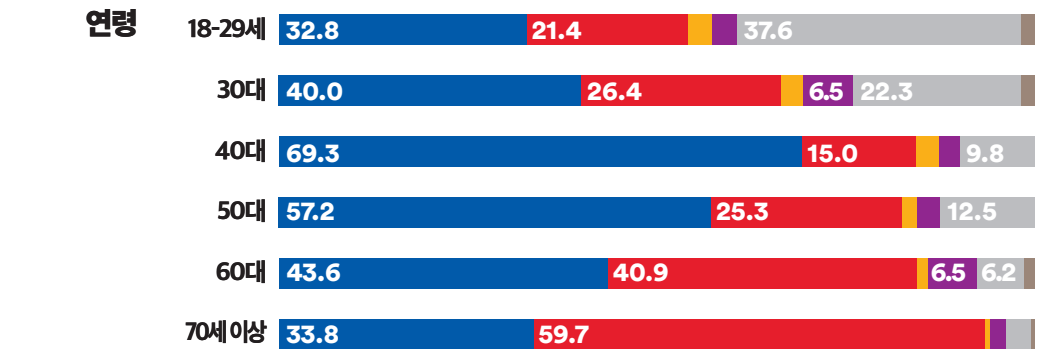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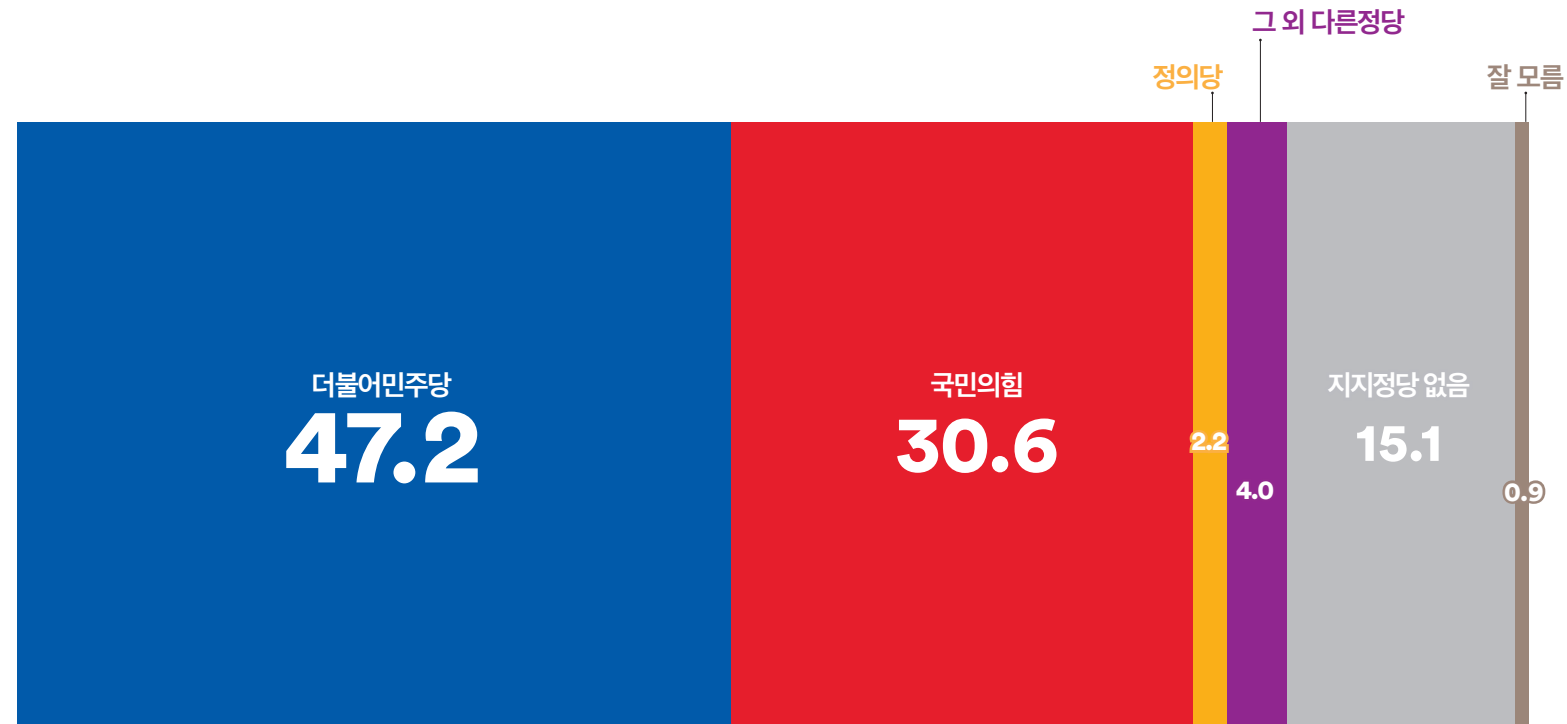
9.9%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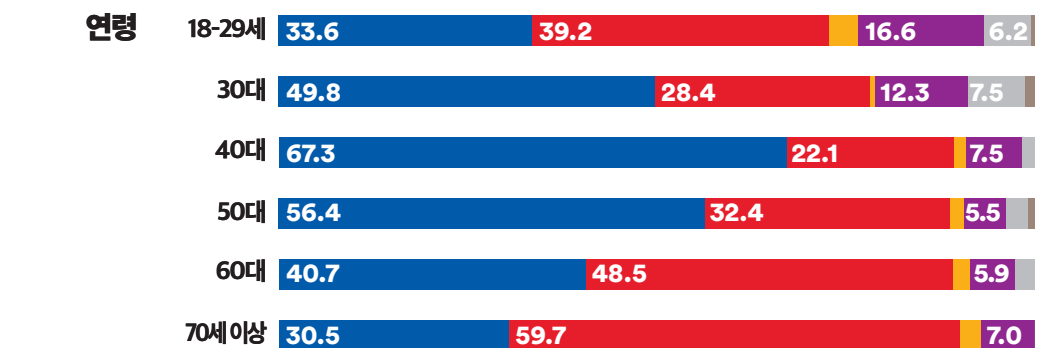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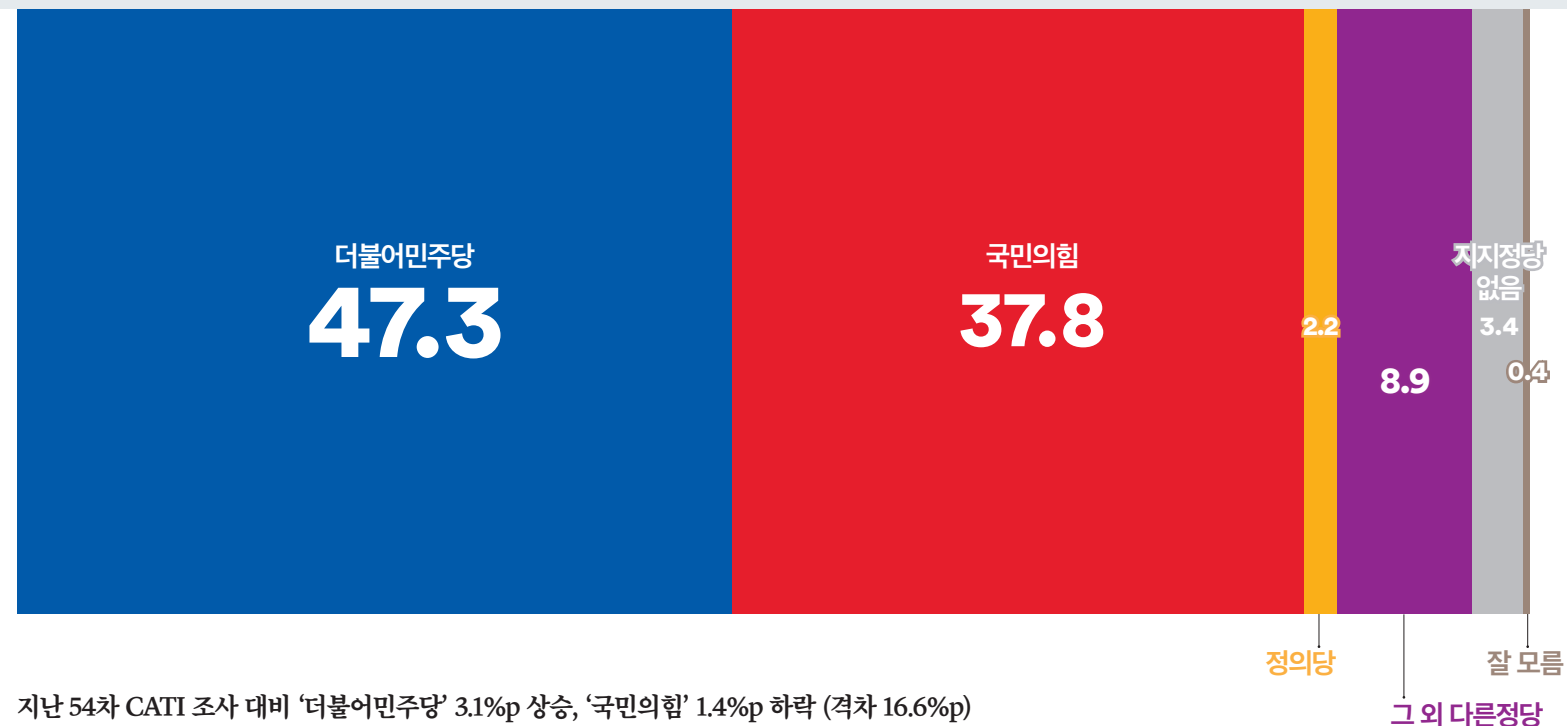
4.2%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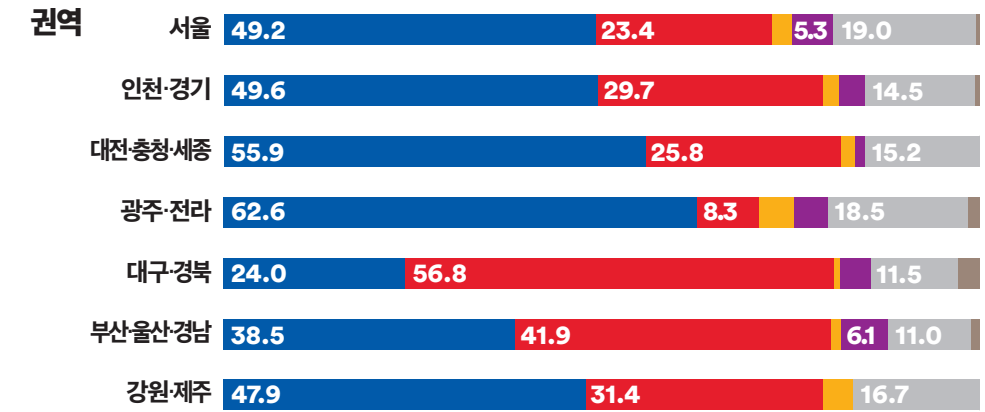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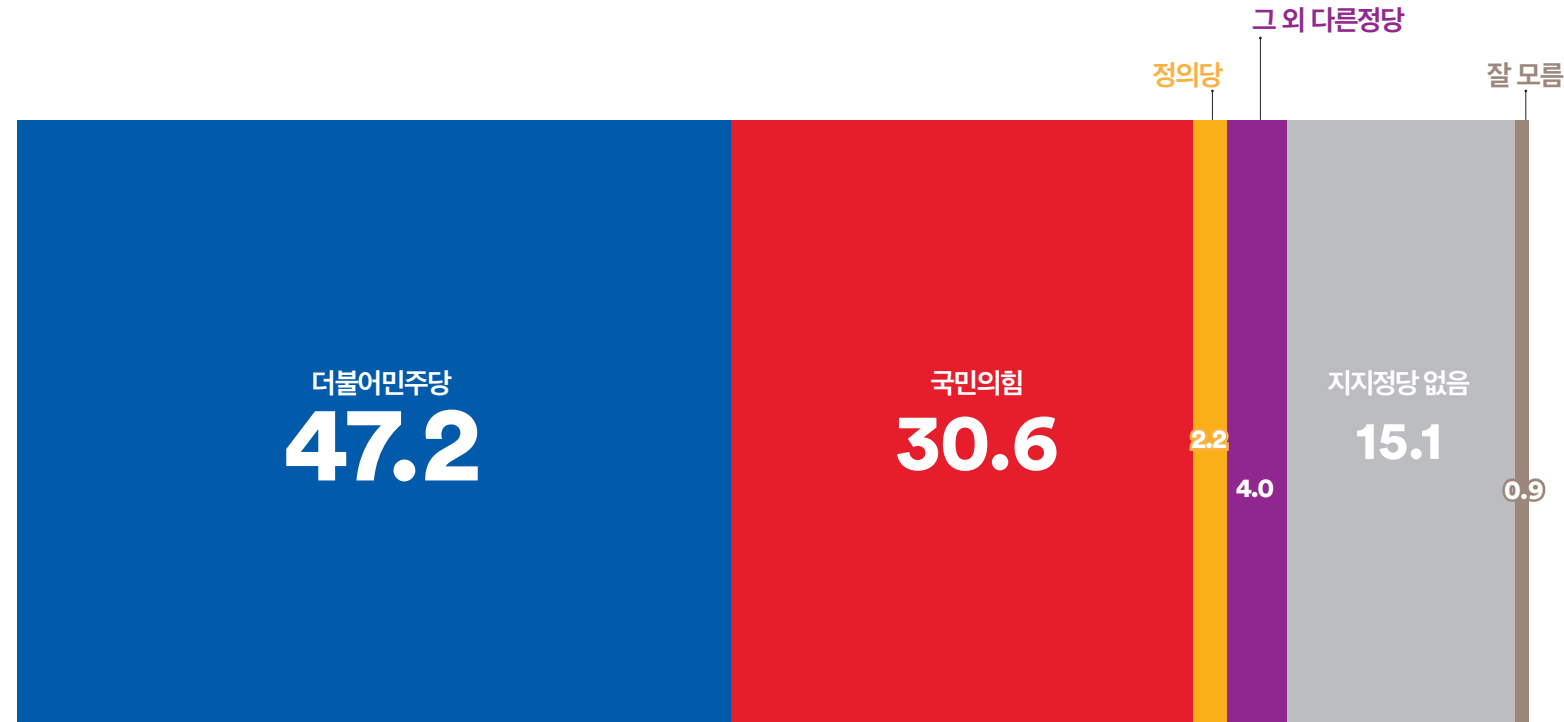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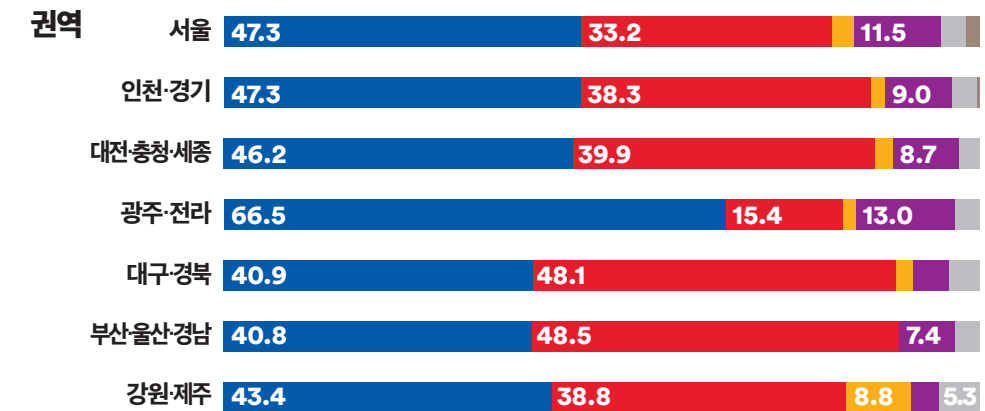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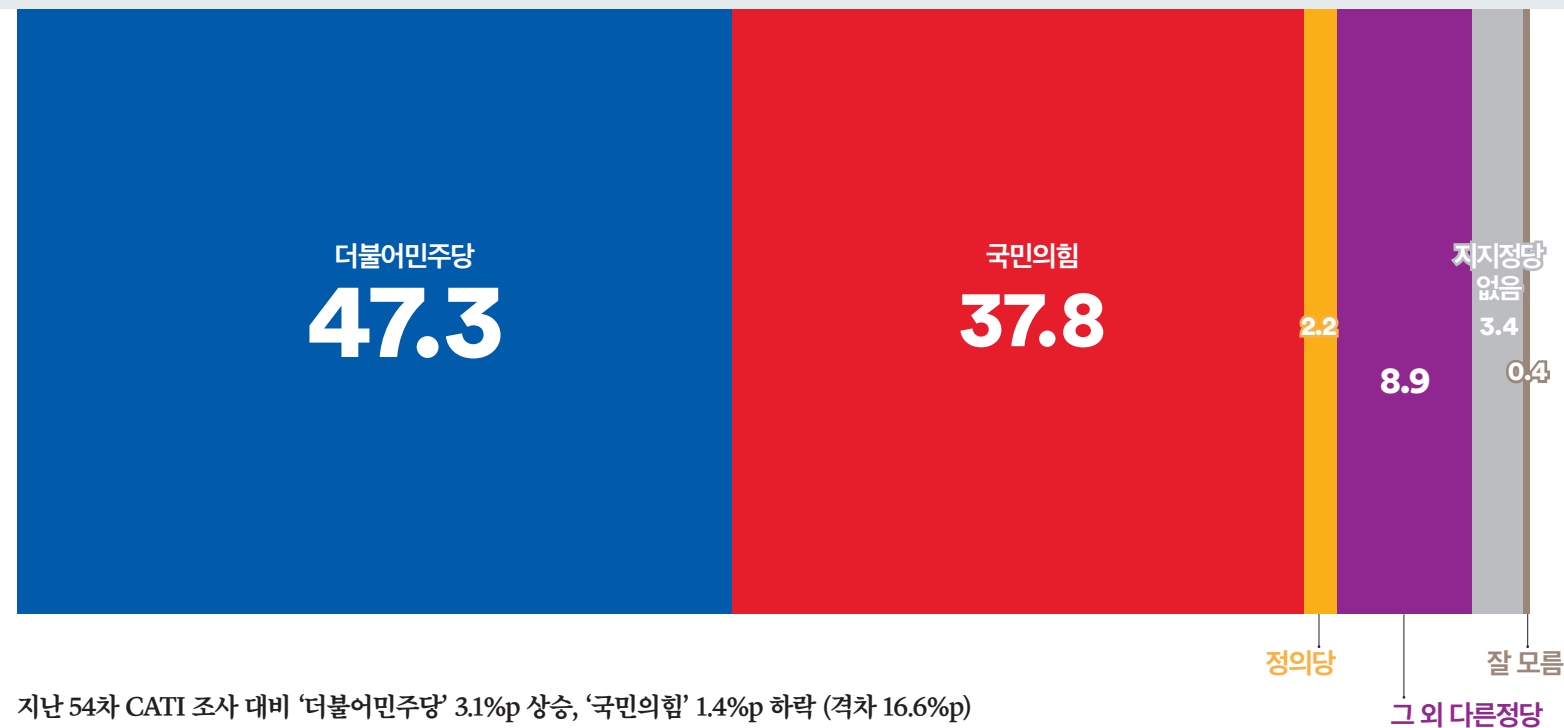
지난 54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1%p 상승, '국민의힘' 1.4%p 하락 (격차 16.6%p)
 지난 69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4.2%p 하락, '국민의힘' 3.0%p 상승 (격차 9.5%p)
 CATI조사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TK권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40·50대(ARS 30대 포함), 진보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및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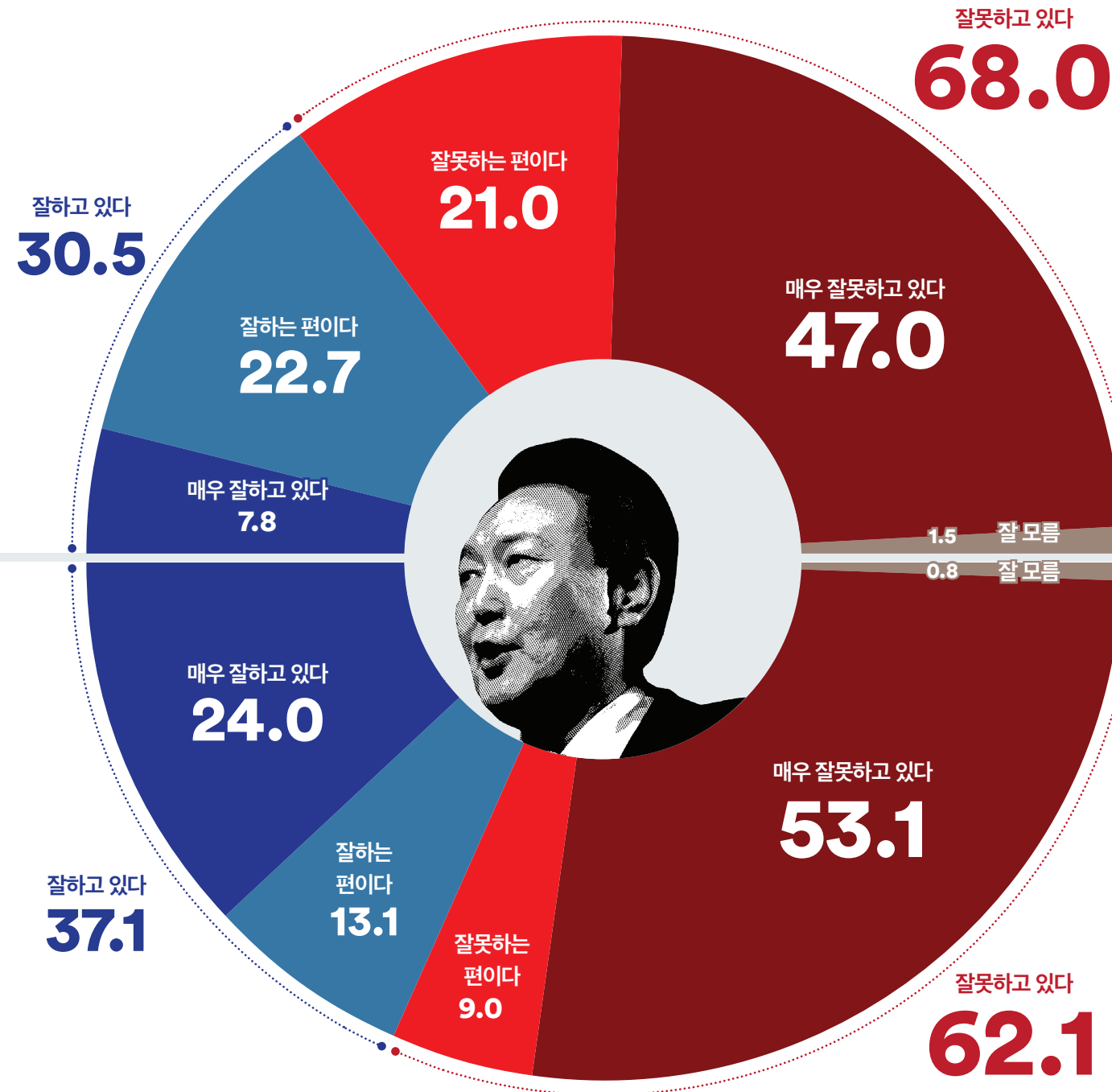
ARS



지난 54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1%p 상승, '국민의힘' 1.4%p 하락 (격차 16.6%p)
 지난 69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4.2%p 하락, '국민의힘' 3.0%p 상승 (격차 9.5%p)
 CATI조사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TK권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40·50대(ARS 30대 포함), 진보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및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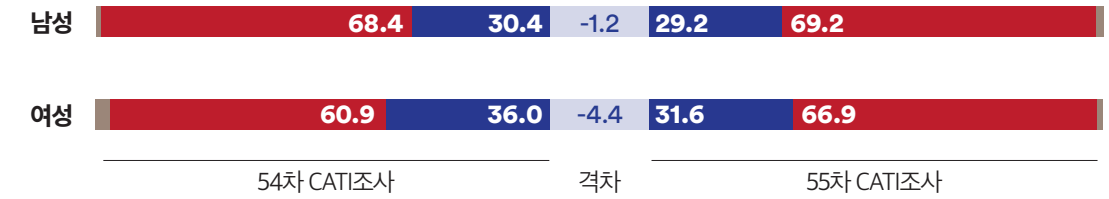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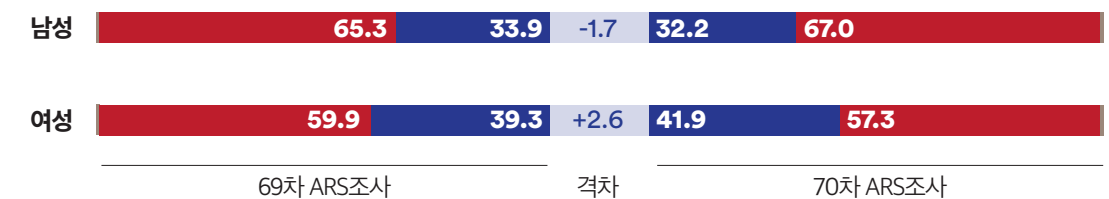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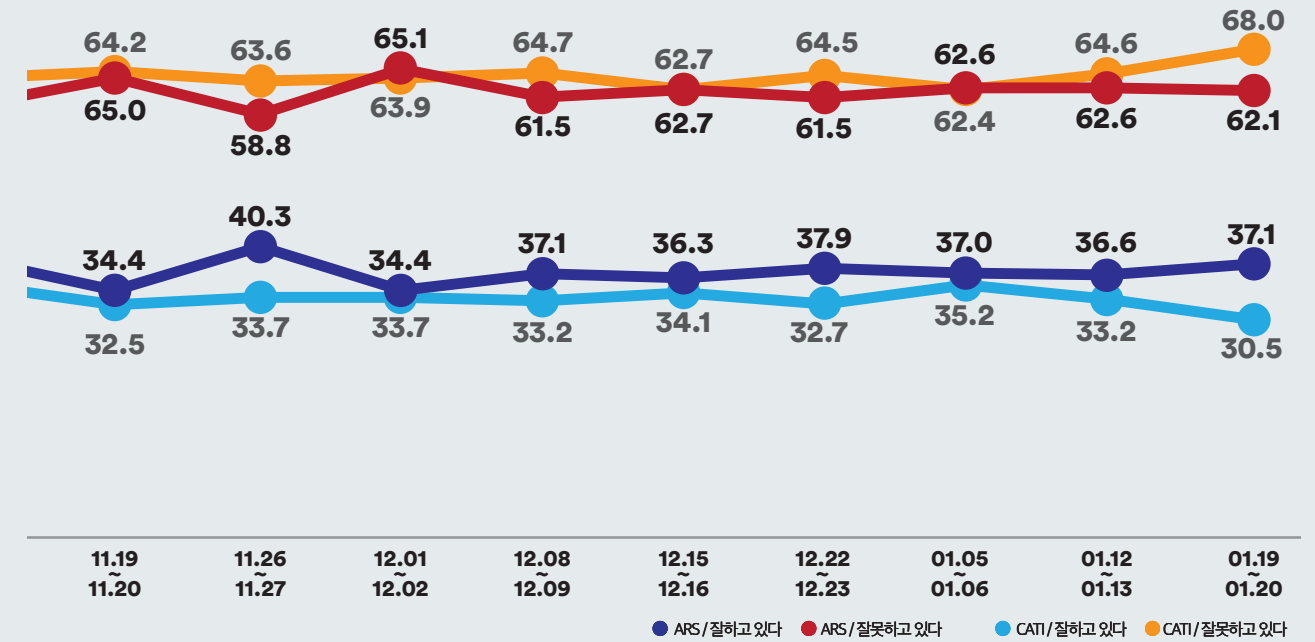


ARS

지난 54차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27%p 하락, '부정'평가 3.4%p 상승 (격차 37.5%p)
 지난 69차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0.5%p 상승, '부정'평가 0.5%p 하락 (격차 25.0%p)
 두 조사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은 '부정' 평가, 70세 이상은 '긍정' 평가우세
 중도층의 긍·부정 평가 격차는 CATI 조사 51.1%p(지난조사: 53.1%p), ARS 조사 33.3%p(지난 조사: 32.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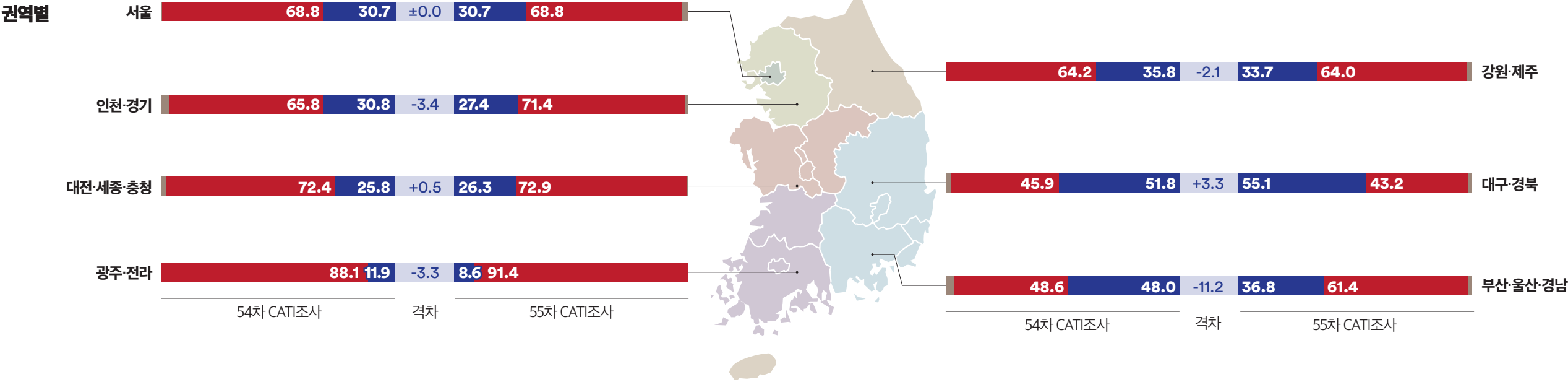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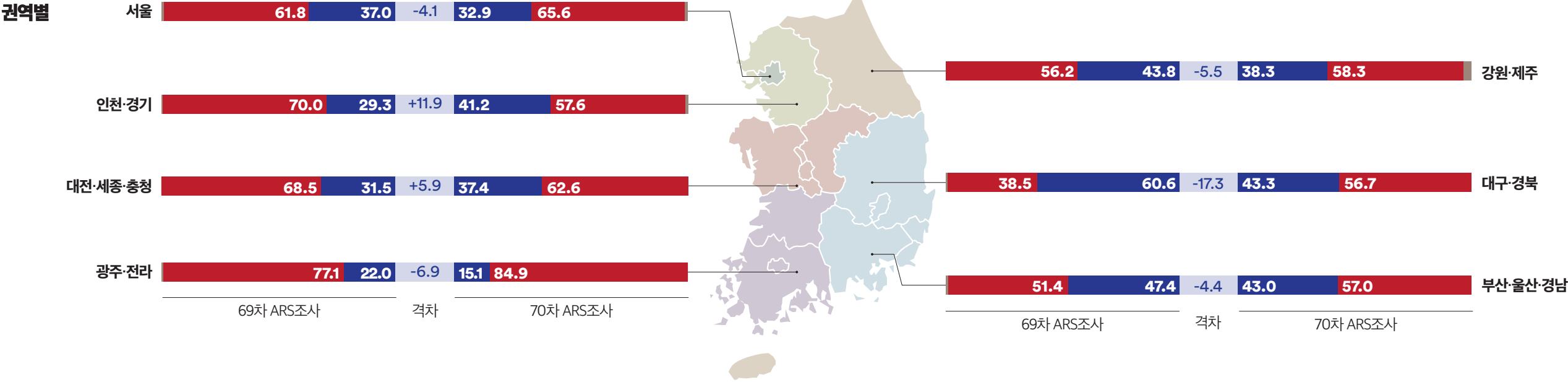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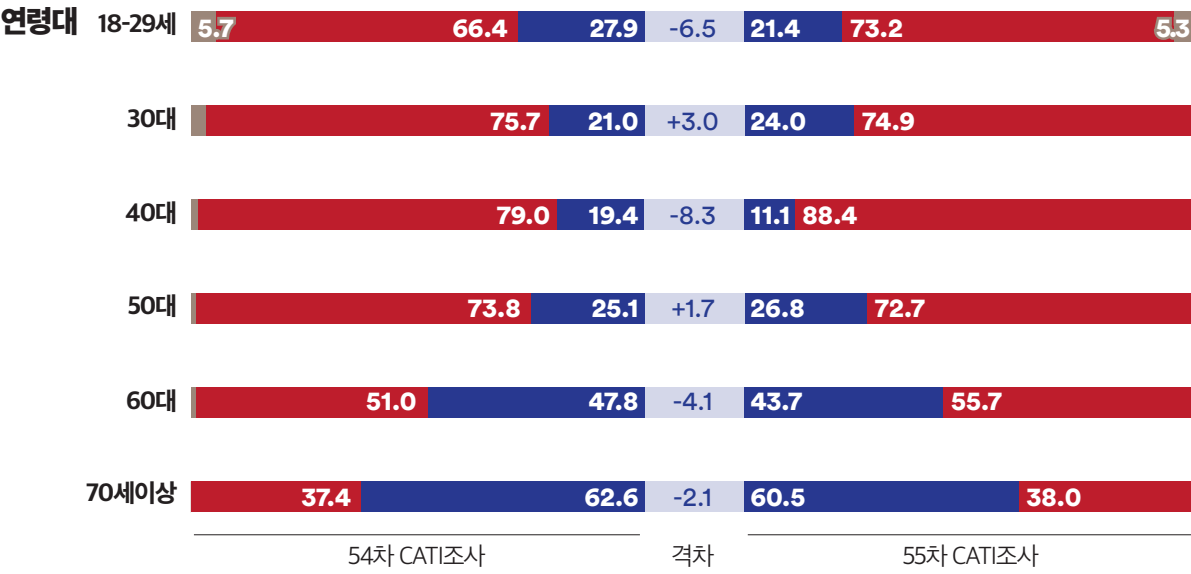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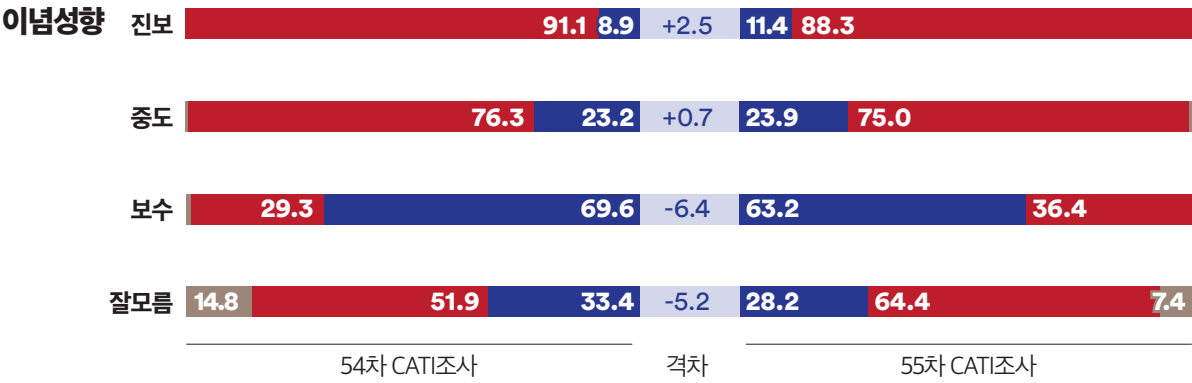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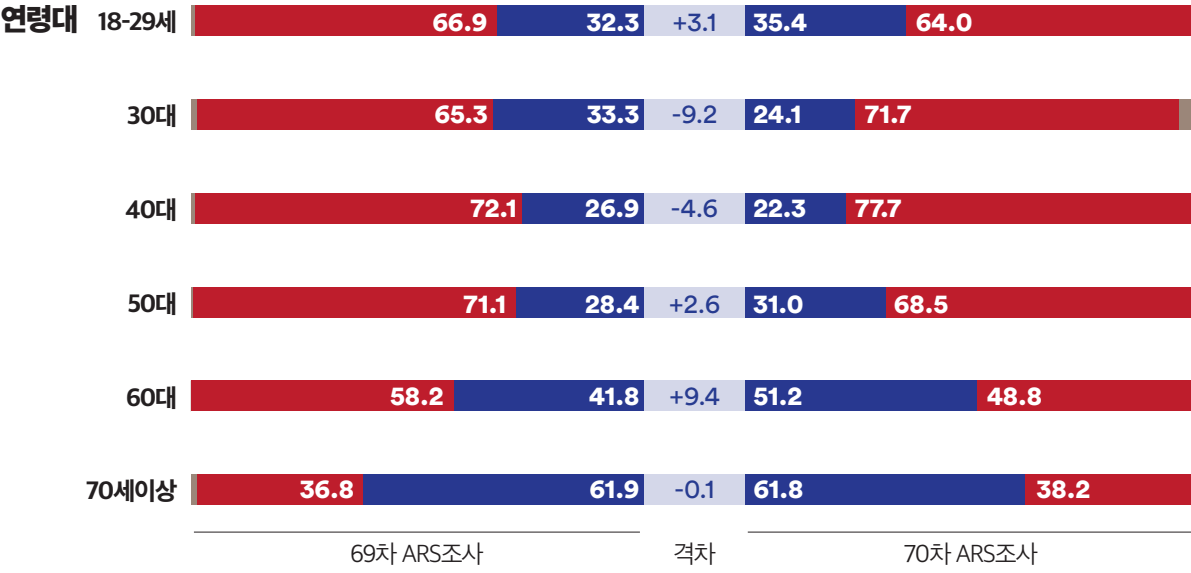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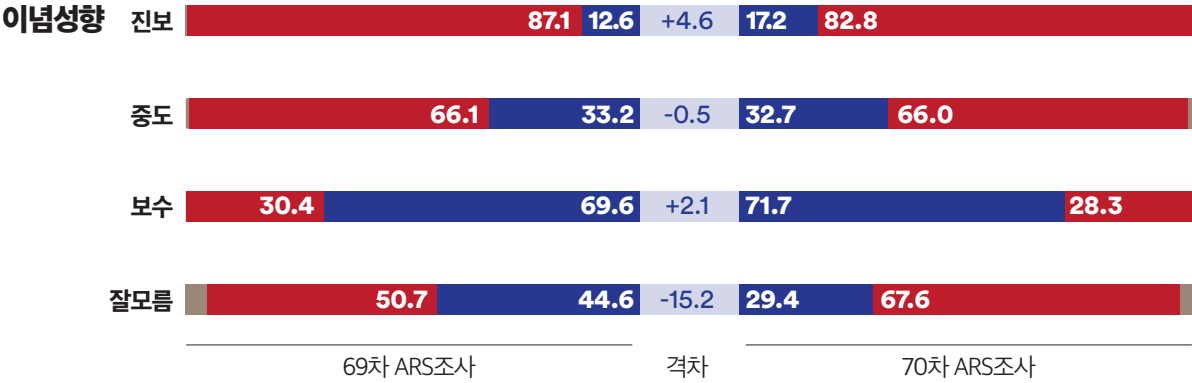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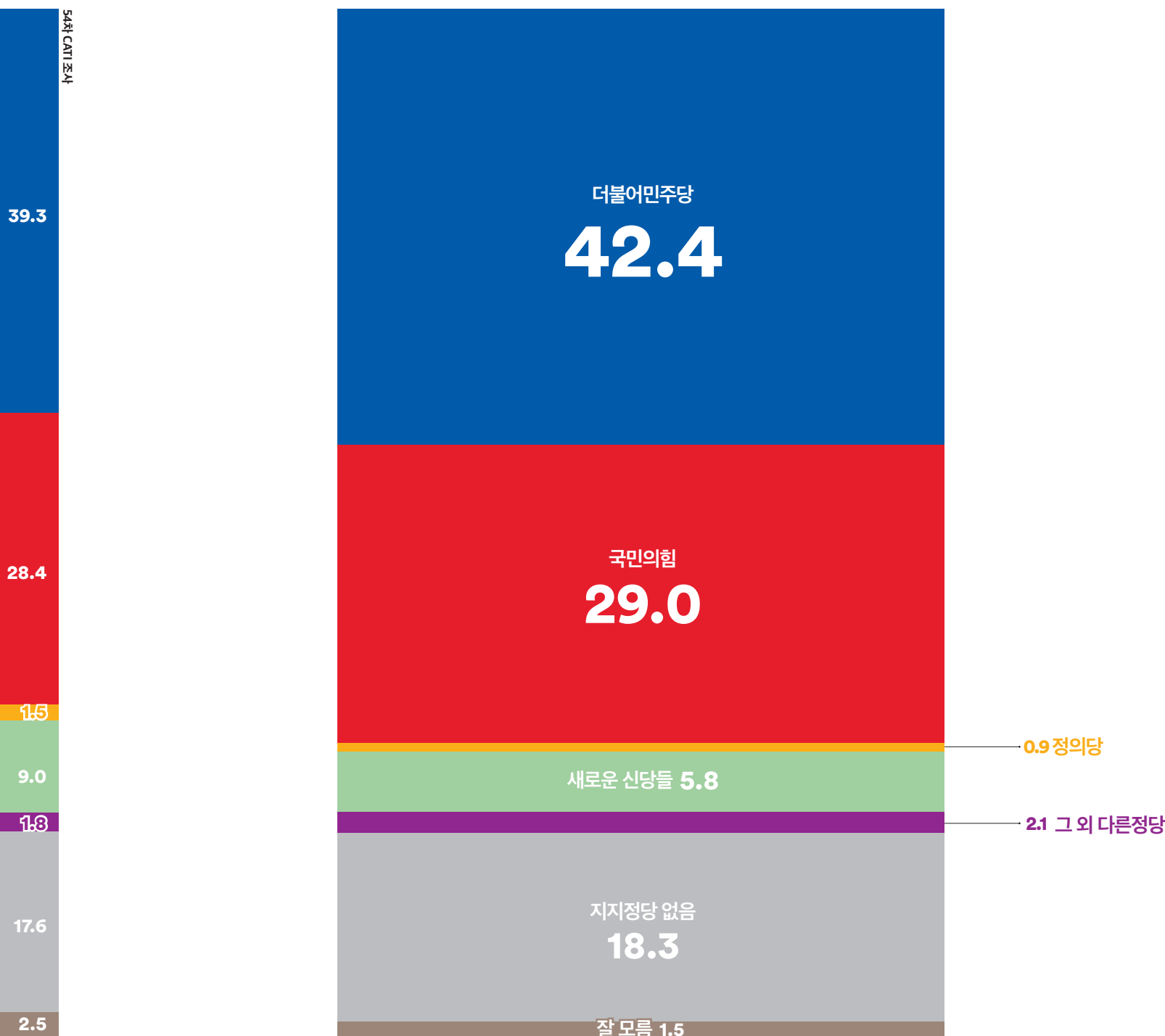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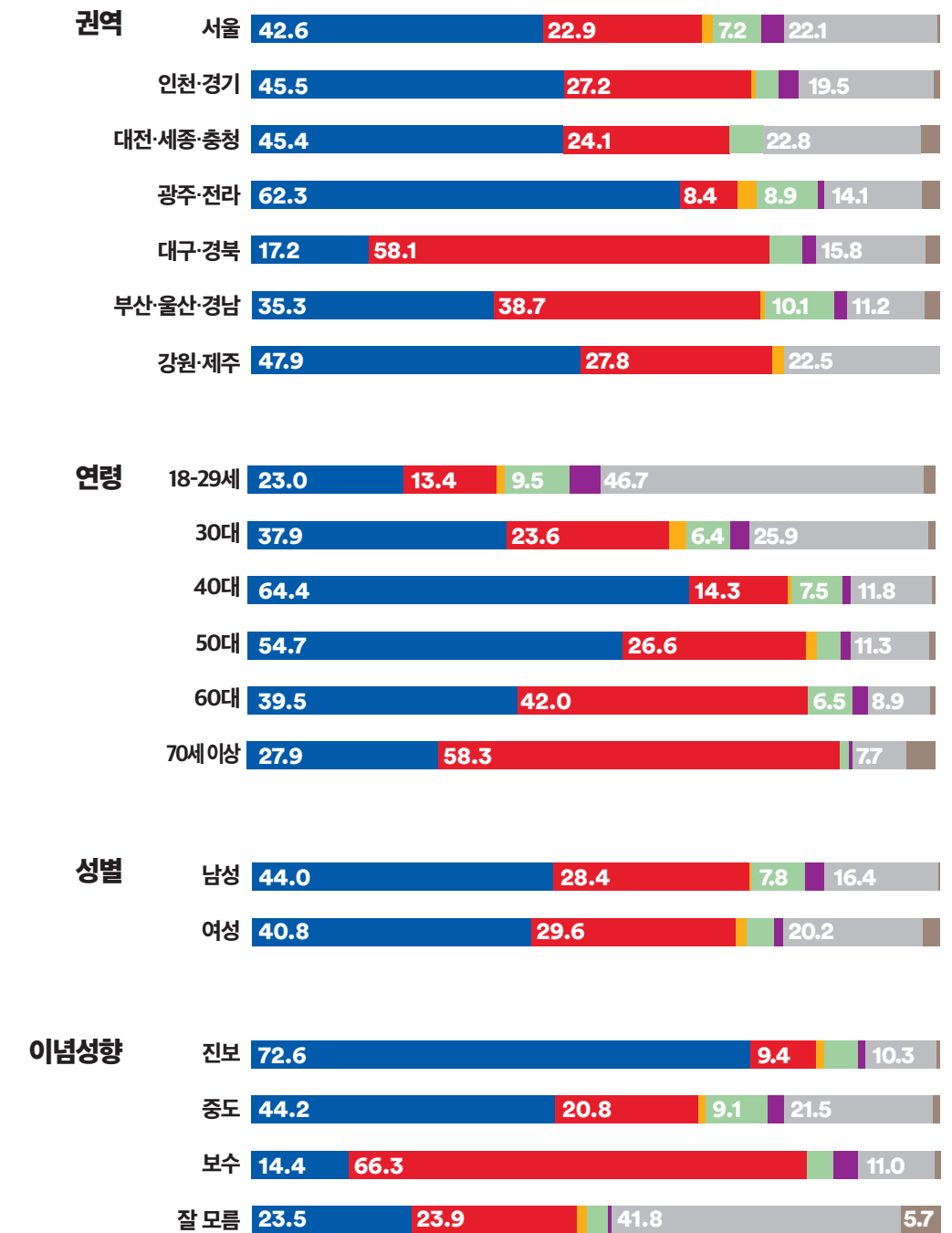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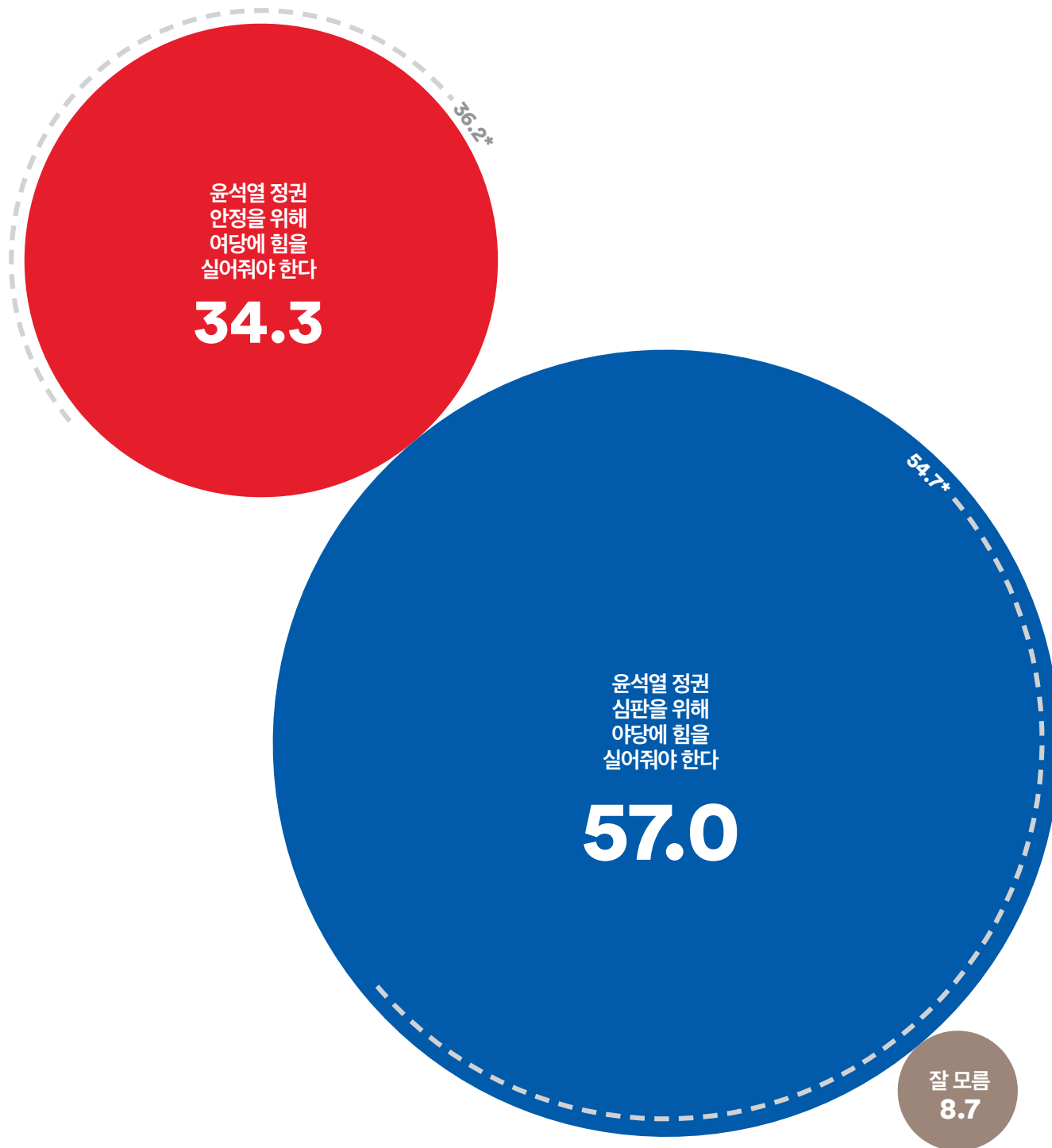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승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승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 대비 앞섬 (격차 13.4%p)
 지난 54차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3.1%p 증가, ‘국민의힘’은 0.6%p 증가, ‘새로운 신당들’은 3.2%p 감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와 PK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
 모든 성별, 중도층, 40대·50대는 ‘더불어민주당’, 70세 이상은 ‘국민의힘’ 우세 (중도층 격차 23.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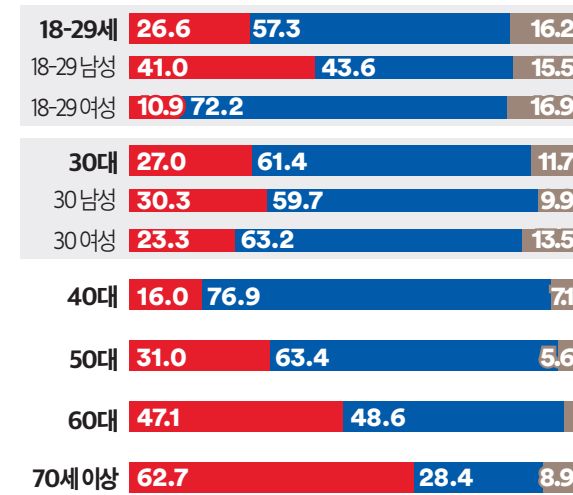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새로운 신당들
 ■ 그 외 다른정당
 ■ 없음
 ■ 잘 모름

Q. 차기 총선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보기는 순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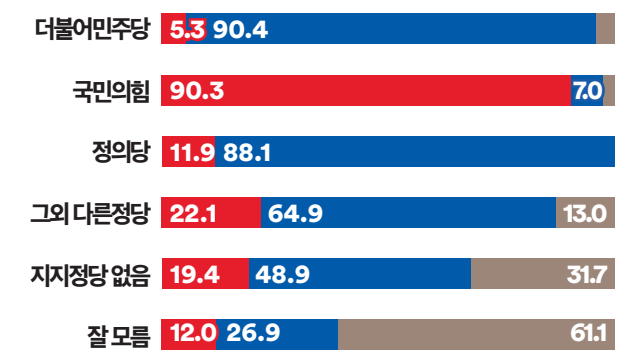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 (격차 22.7%p)
수도권, 충청, 호남 및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정권 심판론', TK 및 70세 이상 응답층은 '정권 안정론' 우세
무당층 및 중도층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 격차 35.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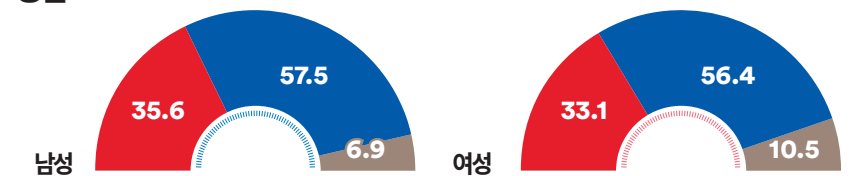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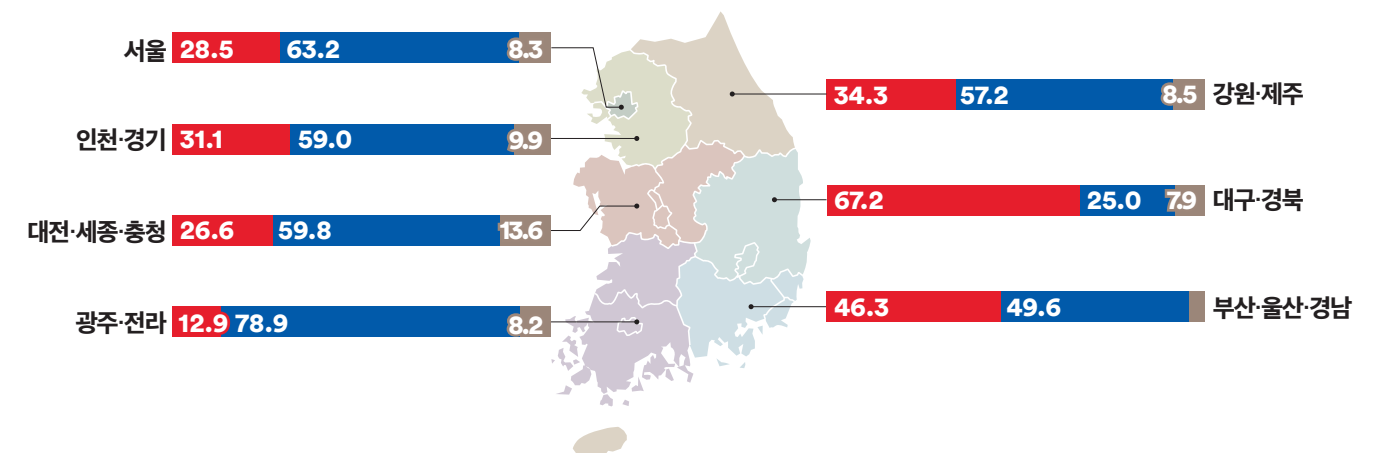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 54차 CATI 조사 수치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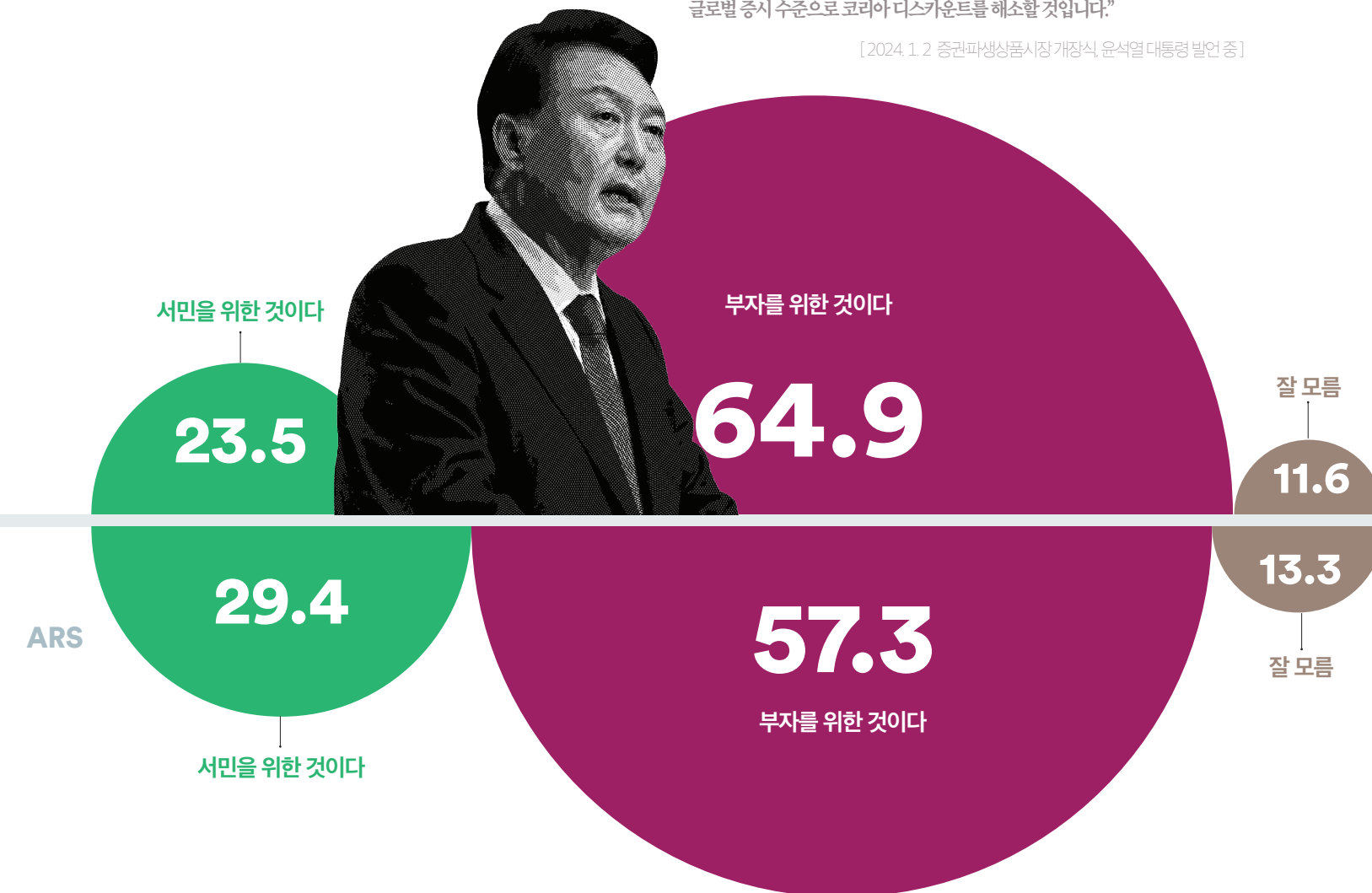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변경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등의 세제 개편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감세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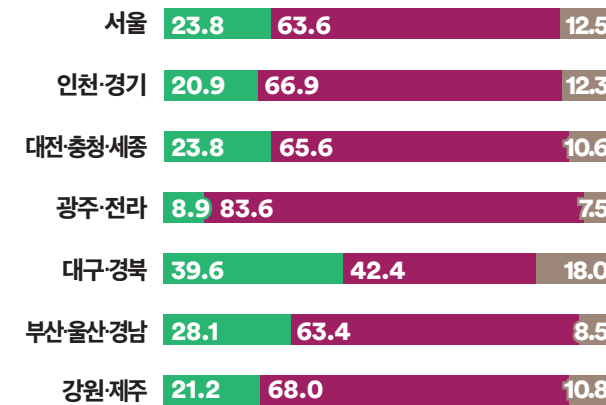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입니다.”

[2024. 1. 2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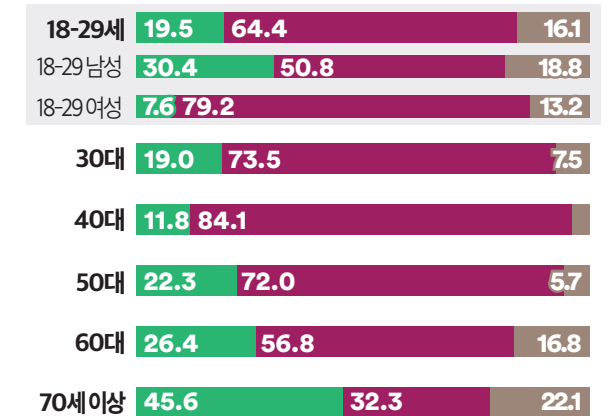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부자를 위한 것'이란 응답 앞섬, 압도적 우세 (격차: CATI 41.4%p, ARS 27.9%p)
두 조사 모두 60대이하 응답층에서는 '부자를 위한 것'이란 응답이 앞서고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서민을 위한 것'이란 응답이 앞섬
두 조사의 무당층과 중도층 모두 '부자를 위한 것'이란 응답이 압도적 우세 (중도층 격차: CATI 51.7%p, ARS 34.1%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 우세 ('서민을 위한 것': CATI 56.6%, ARS 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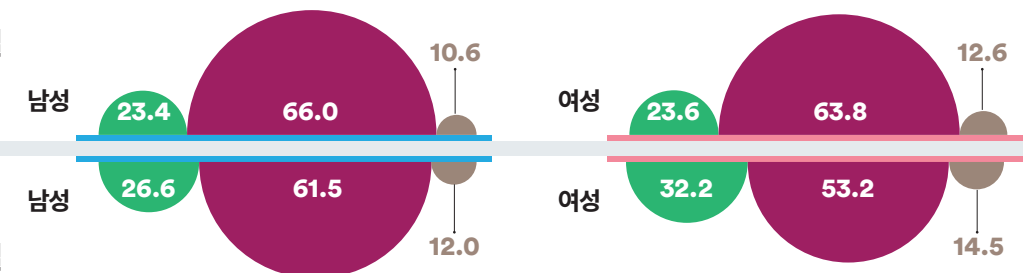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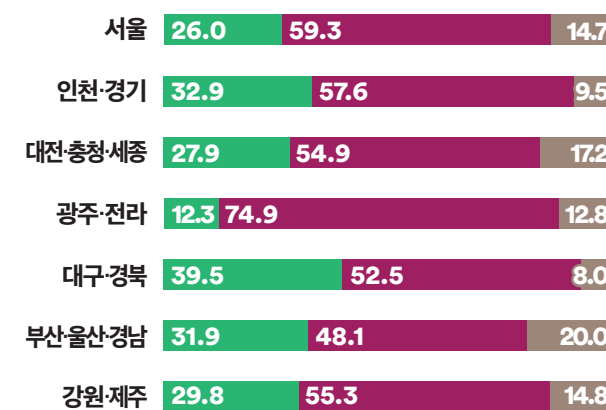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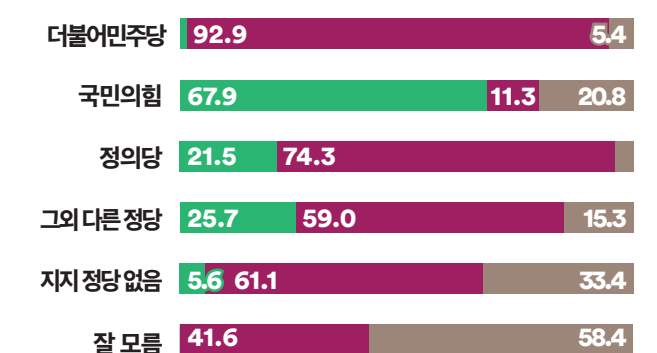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서민을 위한 것 부자를 위한 것 모르겠다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대통령거부권제한” 개헌 타당성

Q.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다음 두 주장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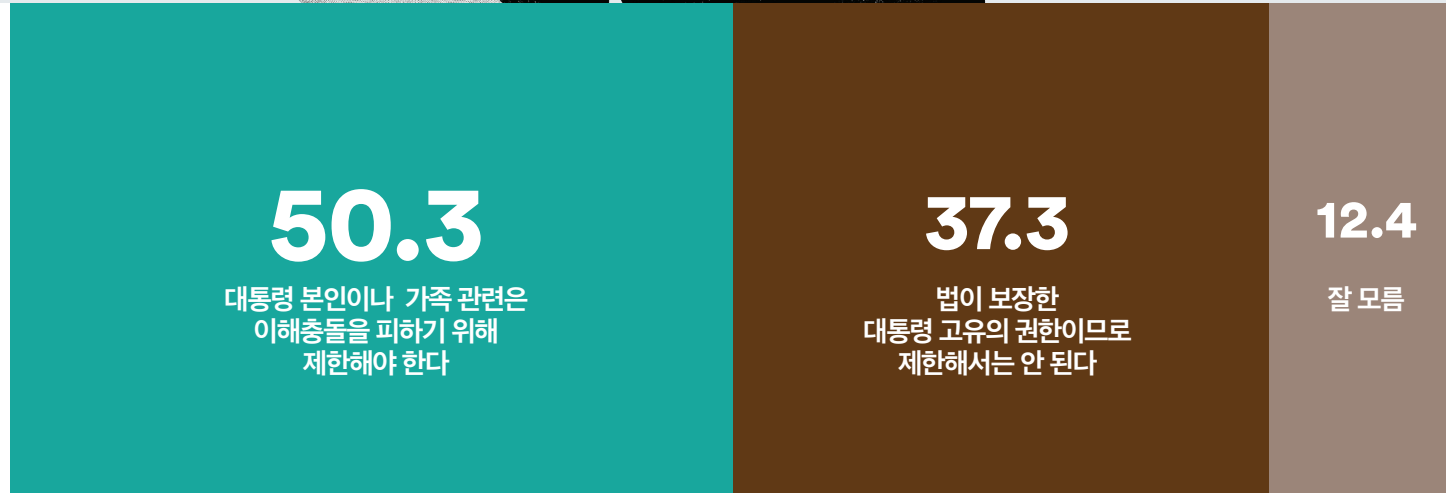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하겠습니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거부한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사로 모셨던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과 부하 감사의 관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카톡 지시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4년 1월 1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중]



ARS



두 조사의 응답자 절반 이상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 (격차: CATI 24.7%p, ARS 13.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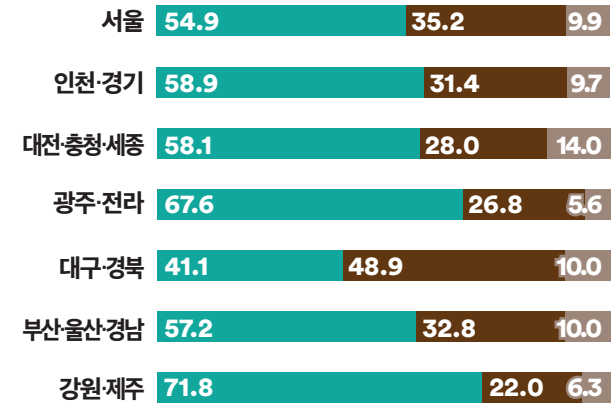
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하면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은 모두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 앞섬

두 조사의 70세 이상 연령대와 ARS 조사의 20·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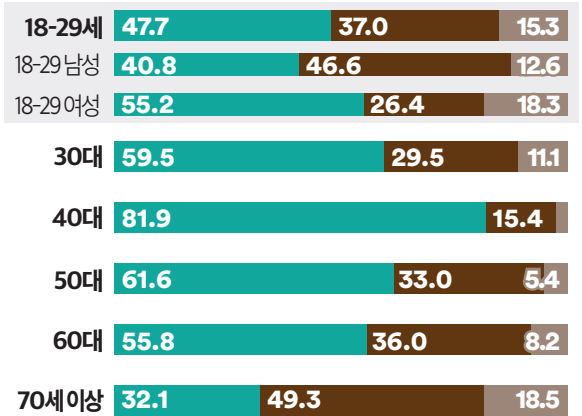
중도층은 두 조사 모두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중도층 격차: CATI 33.9%p, ARS 17.6%p)

보수층의 경우,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CATI 36.0%, ARS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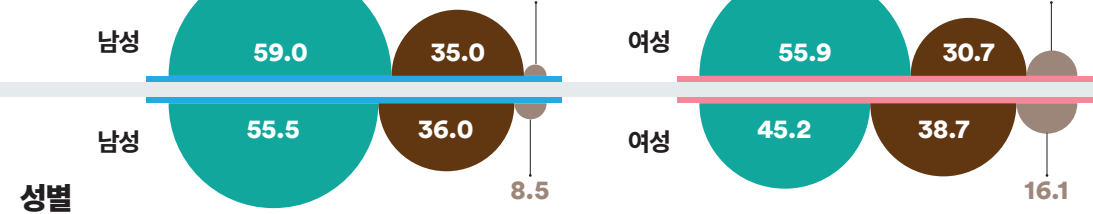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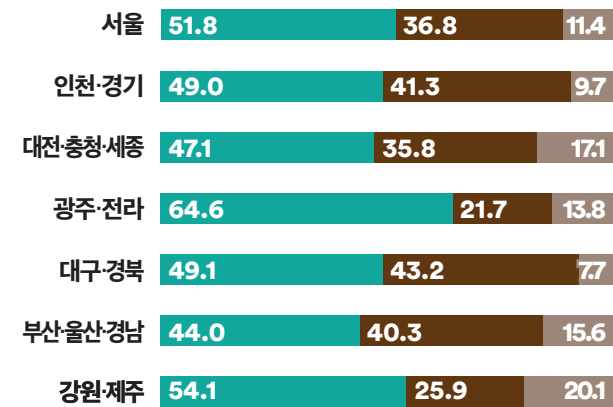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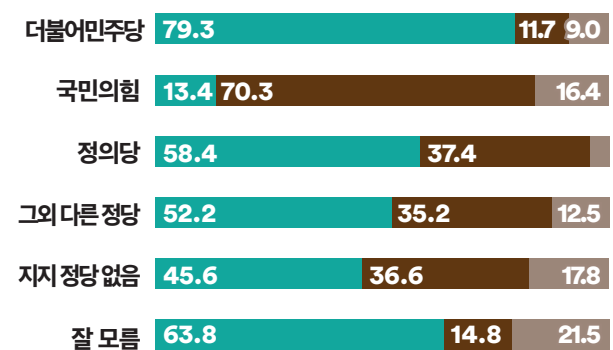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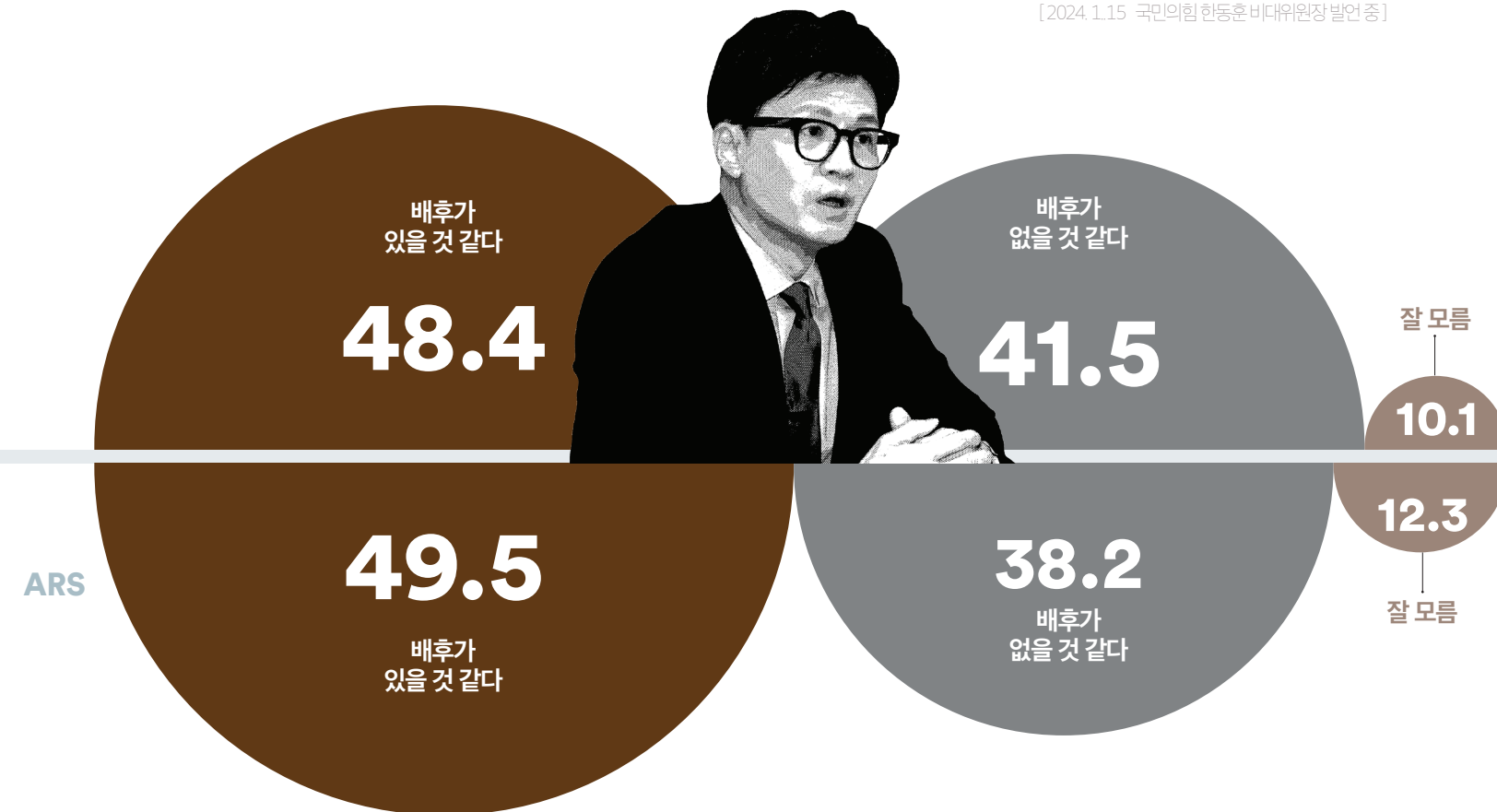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한해야 한다 |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 모르겠다

이재명대표 살인미수사건 배후 가능성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음모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의혹 중에는 배후가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의 배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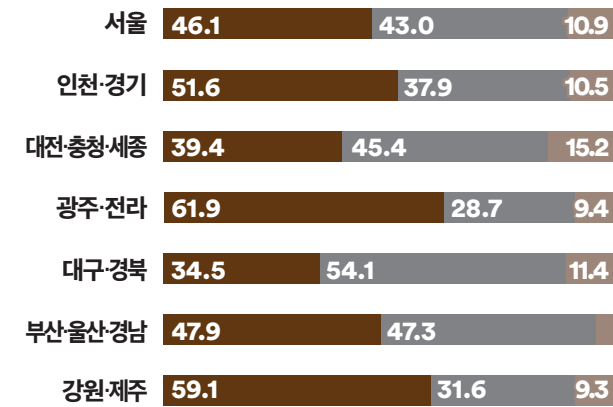
“민주당은 이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희한한 음모론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이용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지지자를 결집해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길 요청드립니다.”
“배후를 얘기하던데 어떤 걸 상상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2024. 1.15 국민의힘 한동훈비대위원장 발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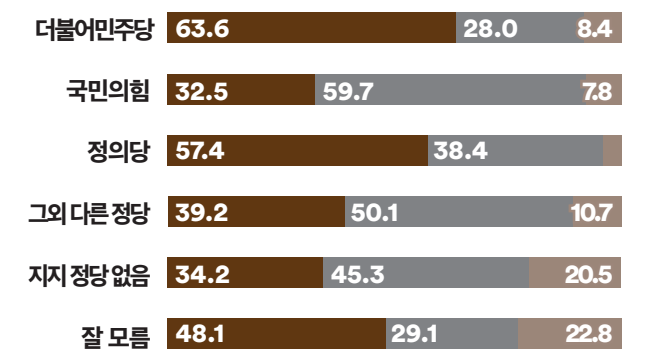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배후가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오차 밖에서 우세 (격차: CATI 6.9%p, ARS 11.3%p)
‘배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응답은 CATI 조사의 경인, 호남권, ARS 조사의 서울, 호남권에서 우세
‘배후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은 CATI 조사의 TK권에서 앞섬

40대(ARS 50대 포함)에서는 ‘배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응답 우세,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응답이 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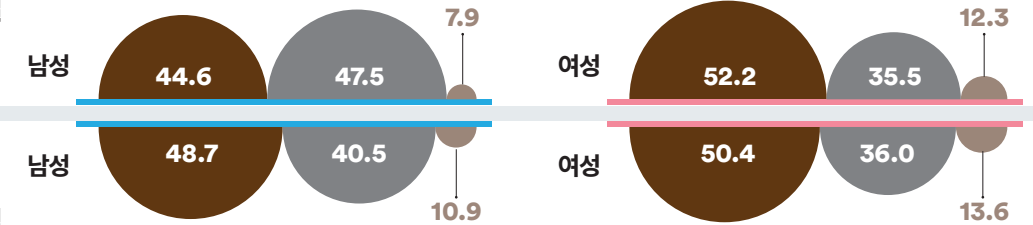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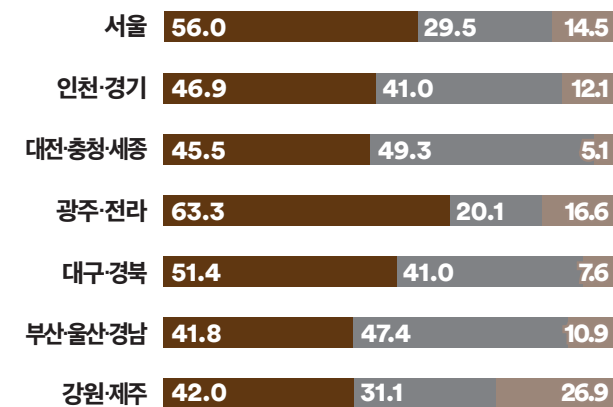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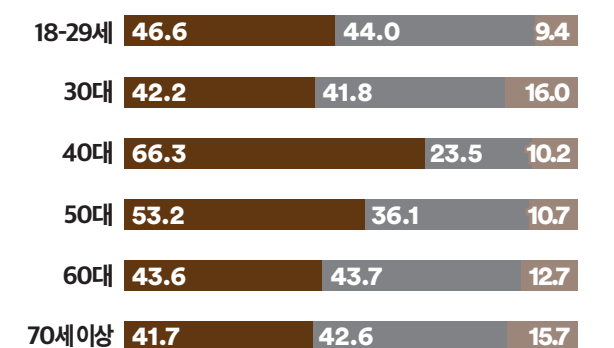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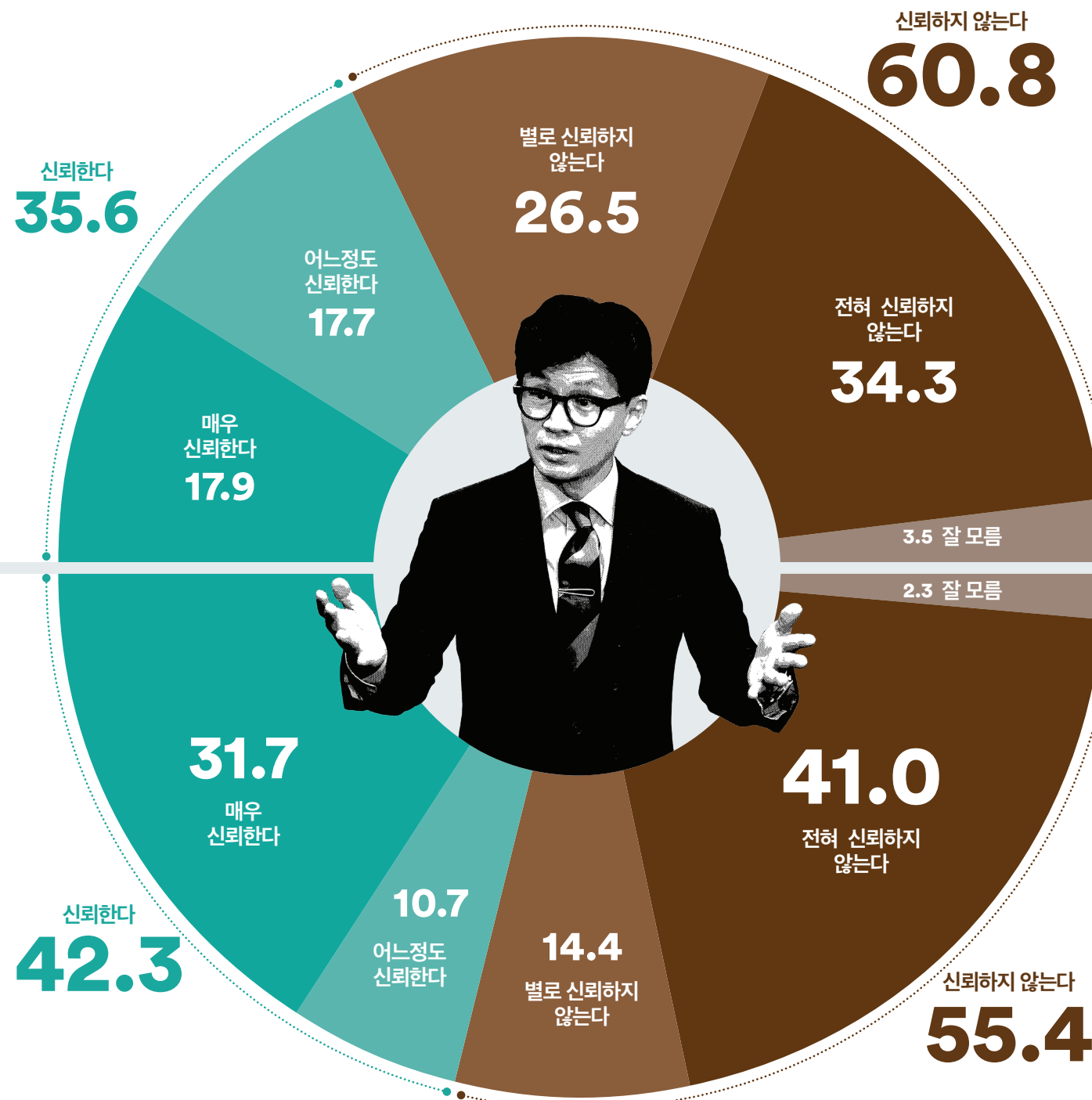


배후가 있을 것 같다 배후가 없을 것 같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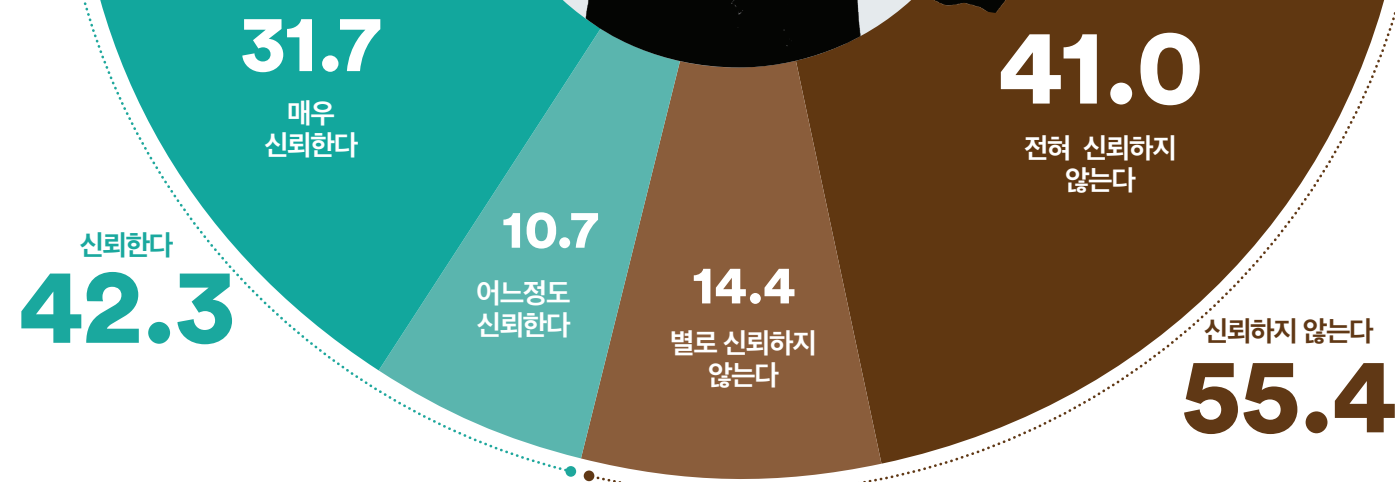


Q.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직구장 관람', '1992 티셔츠' 등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발언을 일반적으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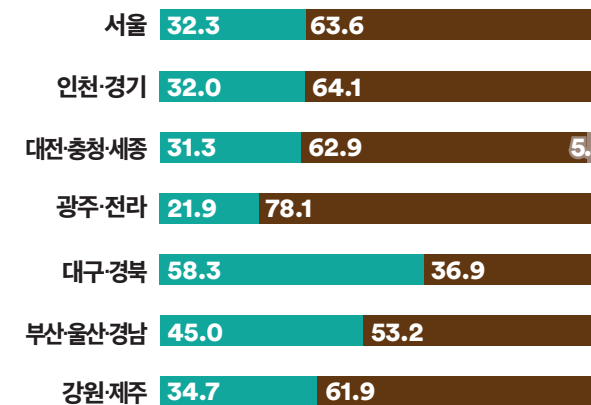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우세 (격차: CATI 25.2%p, ARS 1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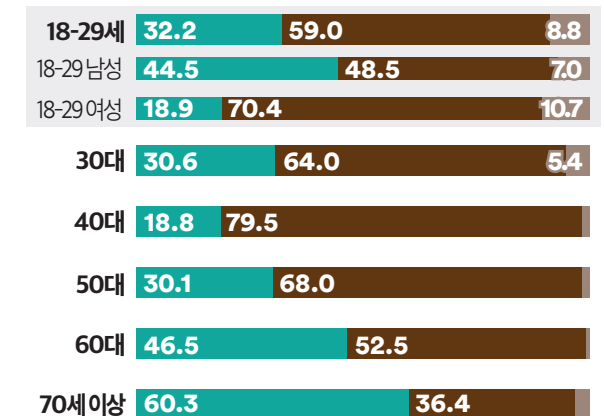
두 조사의 70세 이상, ARS 조사의 60대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 우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앞섬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우세 (중도층 격차: CATI 32.7%p, ARS 17.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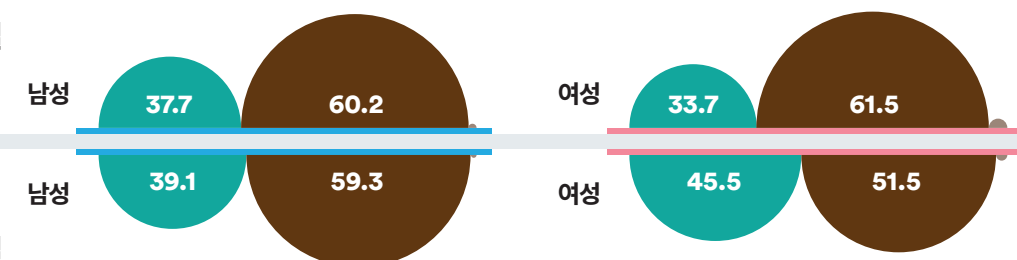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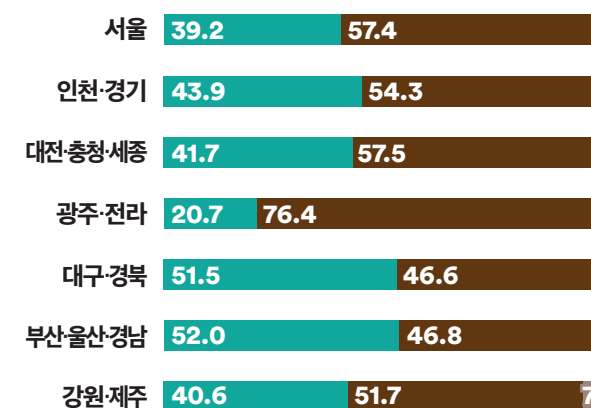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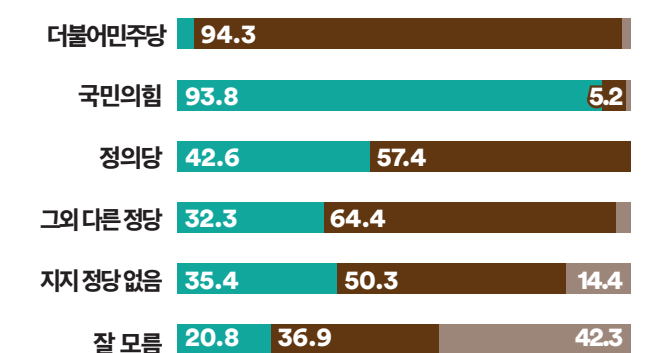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01_07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